



南冥院報

제 25 호
2002년 3월

THE NEWSLETTER FROM INSTITUTE OF NAMMYUNG STUDIES

發行人:金忠烈 / 編輯人:金敬洙 / 發行處:社團法人 南冥學研究院 / 住所:慶南 晉州市 鳳谷洞 14-21 / 電話:(055)748-9147~8



▲ 2001 년도 정기총회 광경(2001.12.22)

◆ 目次 ◆

題字:金忠烈

- 3-5 / 시론 · 교육부재, 그 대응책은? / 정대구
- 5 / 시가 있는 마당 · 혼자가는 길 / 김동렬
- 6-7 / 남명연원을 찾아서 · 옥동 문익성 / 박병련
- 8-11 / 남명문학현장답사기 24 · 산해정(2) - 산해정에서 세상을 꿈꾸는 남명 / 정우락
- 12 / 한약이야기 / 보이지 않는 눈을 밝혀주는 발운산 / 홍승현
- 13-17 / 자유기고 · 지리산과 남명학관 / 오이환
- 18 / 연구원 간행도서 및 기념품 안내
- 19-20 / 제 2 회 전국독서경시대회 수상작 · 내 마음의 해와 달 / 유다은
- 21-22 / 남명학연구논총투고 · 심사 · 게재 규정
- 24 / 학술상 안내 및 연구계획서 양식
- 25 / 회원 가입 신청서
- 5,17,22,23 / 소식
- 2,25,26,27 / 광고
- 28 / 연구원 전화번호변경 안내, 편집후기



2002. 문화관광부 선정 지역민속축제
『남명 선비문화축제』



株式會社 鶴城버스



代表理事 李炳琯

蔚山廣域市 南區 玉洞 山 277-7

電話 : (052) 274-3371



교육부재, 그 대응책은?

정 대 구
시인 / 영산대 교수

나에겐 모자라는 점이 너무 많다. 많고 많은 모자라는 것 중에서도 특히 인물이나 사물을 평하고 비판하는 비평정신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그런데 남명학 연구자인 정우락 교수가 나와 같은 대학에서 일하게 된 인연으로 그가 관여하는 남명원보에 시평(時評 - 時論)을 한 번 쓰라 한다. 어떻게 시국에 문외한인 나 같은 사람이 시평을 쓰나? 처음에 나는 시평(詩評 - 詩論)을 쓰라는 소린 줄 알았다. 내가 시시한 시지만 시를 끄적이는 줄 아는 정 교수가 나에게 시평을 부탁하는 줄 알았다. 그러나 시평(詩評)도 못쓰는 시시한 시인에게 시평(時評)이라니, 내 집엔 지금 텔레비전도 없고 신문도 들이지 않는 데, 그렇다고 주위 사람들과 어울려 시국을 논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일도 없이 두문불출 그야말로 시대와는 담을 쌓고 지내는, 지내려는 어제 오늘인데, 그리고 모두에 내건 비판 내지 비평정신의 부재는 나에게 있어서 엄살이나 겸양의 말씀이 아니고 진짜로 그것이 나의 약점임을 스스로 통감하는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다니, 나도 놀라워라.

아무리 껌구멍에 못을 치고 사는, 아무리 시사(時事)에 문외한이라 하더라도 안 들을 수 없는 작금의 각종 케이트, 시도 때도

없이 불거져 나오는 신중 비리, 연초부터 왜 이리 시끄러운지. 안 기부 돈 정치자금전용 어땡구 저땡구, 대통령 비자금 20억 + α 설 어땡고 저땡구, 의원 빼돌리기 어땡구 저땡구... 이딴 것들이 어디 어제 오늘의 일이던가. 고질화된 부정, 부패, 비리. 최고운의 시처럼 세상 소리 안 들으려고 아무리 귀막고 눈감고 있어도 세상 하 시끄러워 밤낮없이 담을 넘어 들려 오는 이 잡음은 다 뭐고. 동서남북 좌우상하 가릴 것 없이 나의 앞뒤에서 마구 터져 나오는 오물세제, 썩은 물줄기 - 탁류의 거침없는 시류(時流)도 대체 피할 길이 없네. 도대체 사회가 왜 이 모양인가. 사람을 길러낸다는 교육기관에서 도대체 사람을 어떻게 길러냈기에 교육받은 그 사람들이 이 모양들인가. 부정부패의 집단들, 사기꾼의 패거리들을 길러내는 곳이 대학이란 말인가.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일한다는 소위 사회 지도층 인사 치고 대학 물 안 먹은 자 드물고 대학 물 먹은 자 치고 이권 다툼에 밝지 않은 자 드물고 이권 다툼에 밝은 자 치고 비리와 각종 부조리에 연루되지 않은 자가 드무니 한심해서 하는 소리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했는데, 윗물이 이 모양이나 아랫물이 썩을 대로 썩을 수밖에, 그 결과 영광

스럽게도 부정부패 세계 제 1 위라지. 아마, 이 영광 국민과 함께 제일 많이 차지할 사람들이 나를 포함한 교육 관계자들이 아닐는지. (이렇게 서두를 꺼내 놓긴 하지만 이게 뭐 시평 글체람. 어차피 정교수도 시평 글체다운 글 - 정상적(상투적)인 시평을 기대하고 나에게 청탁을 넣은 것은 아닐 터. 그는 나의 이러한 무질서함을 평시부터 잘 알고 있는 사이라. 아마도 나에게 좀 엉뚱한 얘기를 해 보라는 거겠지.)

자, 그러면 우리 나라의 교육이 잘못되었다는 건데, 평생을 교육에 몸 담아온 사람으로서 자존심 상하는 일이지만, 사실이 사실인 만큼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

국가의 백년대계인 교육이 잘못되었다면 큰 일이다.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인지. 문제야 많다. 하지만 하나 하나 지엽만 건드려서는 미봉책일 뿐이지 근본 대책이 안 된다. 만병의 근원이 되는 그 밑동부터 들춰내서 만사 짓혀두고 어렵더라도 수술을 감행해야 나라가 바로 설 게 아닌가. (其本이 亂而 末治者 否矣 - 대학)

요즘 다시 이슈화되고 있는 일체에 친일한 인사들의 명단 공개 - 국가민족에 공과가 상반되는 일체잔재의 규명 - 민족국가의 정통성 시비가 아닌가. 그렇



다면 우리 교육계에는 일체의 잔재가 없는가. 들춰보면 부끄럽게도 지워버려야 할 얼룩이 적지 않겠지만 그 중에서도 국립서울대학교가 문제다.

나는 우선 단도직입적으로 국립서울대학교를 해체하라고 처방한다. 서울대학교는 얻은 것도 많다지만 실은 가시적인 득보다 불가시적인 실 - 보이지 않게 잃은 것이 따질 수 없이 더 크다 하겠다. 보자, 서울대학교가 어떤 대학인가. 간혹한 일제가 식민지를 통치하기 위한 그 주구를 양성해 낼 목적으로 설립한 옛 경성제국대학의 후신이 아닌가. 중앙청(옛 조선총독부) 건물을 해체하기에 앞서 우리는 진작에 국립서울대학교의 허위를 헐어냈어야 했다. 어떻게 그 허위를 그냥 놔두고 그 위에 국가 백년대계를 설계할 수 있단 말인가. 민족정기니 애국심이니 하는 게 다 뭐 말라비틀어진 것이야. 나라의 정통성이라고? 정체성이라고? 시작부터 그딴 건 거지발싸개가 되고 말았다.

개인주의 · 우월주의 · 기회주의 · 출세주의 · 배금만능주의...

어찌 서울대학만이 그러하랴. 나라의 간판 대학이 이 모양이니 서울(소재)대학 · 지방대학 할 것 없이 너 나 없이 거기에 줄을 서지 않는가. 그게 모범답안인 줄 알고 따라 하기. 너도나도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출세하기, 잘 먹고 잘 살기. 거기에 목을 매는 교육? 그게 뭐 교육이야. 인격부재 생존경쟁만 있는 교육부재의 교육으로 대학에서 세뇌되어 나온 사회의 지도층 인사들이 자본주의 물질만능사상과 맞물려 그들이 우리 나라를 세계 제1의 부패국가로 만들어 놓지 않았는

가. 배운 자들이 이 지경이라면 차라리 그래 노자도 말했지 - 절성기지민리백배(絶聖棄智民利百倍)라고

교육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서는 법. 한 나라의 교육이 바로 서자면 나라의 뿌리를 찾아 나라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살려서 그 위에 국립대학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 세계에 내 놓아 부끄럽지 않을 만한 나라의 간판 대학이 꼭 필요하다면, 지금이라도 국가의 백년대계를 바로 세우자면, 교육을 바로 하자면 경성제국대학의 후신 지금의 국립서울대학교를 해체하고 성균관대학교를 국립대학으로 개편해야 할 것이다. 다 알다시피 성균관대학교는 수백 년간 인과 의, 충과 효, 원형이정(元亨利貞)을 주종으로 하는 도덕적 이념으로 사람의 기본을 세워 나라의 정통성을 바로 하자는 교육의 장이 아니었던가. (내가 성대 출신도 서울대 출신도 아니라서 함부로 되지도 않을 말, 되지도 않게 시부령거리는 거야 뭐야.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도 아니고 - 몰매 맞으려고. 아니지, 그래도 할 말은 해야지.)

둘째, 교수순환근무제를 주창한다. 입학 시즌이면, 200 점 이상 짜리, 200 점 이하 짜리 그 안에서 서로 눈치를 보며 각각 무리를 지어 기웃거린다. 1 등급 2 등급 3 등급 4 등급 5 등급의 등급이 있을 뿐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 물량만이 넘친다. 물건처럼 숫자들이 왔다 갔다 한다. 물건을 헤아리는 숫자가 입학을 좌우한다. 참, 가관이다. 왜들 이러나. 허영과 요행보다는 근본적으로 대학의 격차 때문이 아닌가. 격차를 줄이자. 줄여야 한다. 어떻게 줄이나.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지만

그 중 우리 교수님들이 할 수 있는 것 중의 하나로서 나는 순환근무제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고 본다. 교수님들께 몰매 맞을 발설일지 모르지만 우리 교수들의 불편 그 이상의 것도 대학교육을 바로 하자는 충정에서는 가능하다고 본다. 생각해 보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전국적인 순환근무가 어렵다면 지역 안에서의 순환근무라든가, 국립대학끼리의 전국순환근무, 교환교수제 같은 것을 확대하든지. 어쨌든 대학의 수준을 평준화해서 지금처럼 학교 배정을 놓고 학부모들이 이부자리 깔고 농성을 한다던가, 입학시즌 때마다 학생들이 지방이고 서울이고 우루루 몰려다니는 기현상은 없어져야 할 것이다. 같은 전공이라면 우월감이나 소외감 없이 지방이고 서울이고 원서를 넣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 긴 말 하지 않겠다. 지금 국립 초중고에서 정착된 순환근무제, 이 제도가 있기 전엔 서울 덕수국민학교, 경기중학교를 보내려고 지방에서 어린 것을 서울에 올려보낸 적이 있었다. 지금은 적어도 그런 난리법석은 떨지 않는다. 그것만으로도 이 제도는 성공. 그렇다고 학생의 수준이 떨어졌다고 보는 견해도 없지 않겠지만 나는 그렇게 본다. 어쨌든 평준화는 실보다 득이 많은 제도.

셋째, 인문사회분야 교양과정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 지금 사회는 물질교환적 가치만이 대접받고 정신교환적 가치는 잃어버린 지 오래다. 대학도 마찬가지다. 아니 대학에서 그것을 선도하고 있다. 취직위주로 기능위주로 사람을 물질화 기계화하는 교과과정, 그 결과 염치부재 도의부재

가치부재 인간부재의 사회를 만
들었다. 사람의 사람다운 덕성은
아랑곳없이 기능적 물질적 가치
를 앞세워 그저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남보다 잘 먹고 잘 살기식
교육을 지향하다 보니 부정 부패
불의가 낮간지럽지 않게 확보하
는 쟁민시탈의 천국을 만들지 않
았는가.(德者는 本也요 財者는 末
也니 外本內末이면 爭民施奪 -
대학) 대학에서는 취직도 중요
하고 기능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인간을 만들어야 한다. 사람다운

사람을 길러내는 것이 대학의 임
무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전공
기능은 일터에서 훈련을 통하여
그 직장에 알맞게 적응하도록 재
교육되어도 늦지 않다. 결코 서
둘러서는 안 된다. 교육은, 적어
도 대학 1·2학년은 인문사회분
야의 교양과정으로 채워져야 한
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인문
사회분야가 점점 설자리를 잃고
있다. 이거야말로 서둘러 그 대
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
다.

서둘러 이 글을 마무리하겠다.
나는 논객도 아니고 지면이 지면
이니 만큼 더 이상의 상세한 언
급은 접어두겠다. 요컨대 총체적
이고 근본적인 위기는 역시 총체
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
지 않으면 안 된다는 총정에서
가당찮은 그러나 궁여지책으로
필자의 단견을 피력해 본 것뿐이
다. 이런 글을 쓰게 한 정교수가
고맙고 이런 글도 안돼는 글을
써서 정교수에게 더욱 낮았을 뿐
이다. 敬美

혼자 가는 길

金棟列
시인 / 본원 이사

數億萬年을
해가 혼자서 가네.

數億萬年을
달이 혼자서 가네.

天地가 개벽한 후에도
地球는 혼자서 돌고
歲月도 혼자서 가네.

태어나서
지금까지
나도 혼자서 가네.

人生이란
航海의 배 역시
어차피
혼자서 가야 한다네.

본원 김동렬 이사, 진주문화원장 선출

본원의 김동렬 이사께서 지난 3월 8일에 있는 진주문화원 총회에서 문화원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신임 김 원장은 그동안 진주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기여한 공로가 많은데, 특히 개천예술제의 시작에서부터 관여하여 여러 차례 대회를 맡기도 하였으며 제 사장을 지내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임명소감으로 '진주문화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무엇보다도 문화원의 화합과 시민의 참여의식을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앞으로 진주문화원의 발전을 기대하며, 문화원장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玉洞 文益成

朴 丙 鍊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 / 본원 상임연구위원

玉洞 文益成은 중종 21년(1526), 성균생원 文翁을 부친으로 함안조씨 趙績의 딸을 모친으로 합천군 泉谷里에서 태어났다. 옥동의 직계 조상에 드러난 분으로는 고려조의 文克謙(忠肅公)이 있으며, 서울에서 합천 大治村으로 이사한 분은 옥동의 6세조인 版圖判書 文璫이었다. 합천이 문씨와 어떤 구체적 연관이 있는지는 불분명하나 같은 문극겸의 후손인 江城君 文益漸 역시 합천, 단성 지역에 깊은 연고를 갖고 있었던 점과 南平文氏를 다르게 江城文氏로도 불렀던 점을 보면 합천이 문씨들의故居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신라의 골품제로부터 고려조의 귀족제적 문화전통에서 나타나는 강력한 신분제적 요소는 조선조에서도 사회를 구획하는 중심에 있었고, 옥동이 살았던 시대 역시 강력한 신분제적 요소와 혈연적 유대가 사회구성의 중심 축으로 기능 하던 시대였다. 따라서 당 시대를 살았던 한 인물의 위치를 정확히 인식하는데는 혈연적 사회적 連帶網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옥동의 모친은 함안지역에서 강력한 在地的 기반을 구축하고 있던 함안조씨 漁溪 趙旅의 증손녀로 判決事를 지낸 趙績의 딸이었다. 이를 계기로 옥동의 가계는 강우지역 재지사족들로서 구성되던 혈연적 연대망 속에 위치되게 되었던 것이다. 姨母夫 李義 李公輔는 掌書 李公胤의 아들로 남명선생의 姉兄 李公亮과는 종형제 사이였고, 옥동의 이종사촌인 李得賚은 黃江 李希顔의 사위로 '掌書 李大期 형제의 부친인 동시에 陶村 南應仁의 장인이었다. 그리고 옥동은 황강의 형인 修撰 李希曾의 손서가 된다. 그리고 이종사촌 매부인 安胤祖는 후일 밀양지역에 강력한 기반을 구축한 광주안씨 일파였으며 이공량의 손서인 人笑軒 趙宗道는

외가인 함안조씨로 어계의 5대손이었다.

옥동은 대개의 사족가문의 교육과정에서 그러하듯이 家學으로 기초를 다졌다. 17세 때 비로소 愼齋 周世鵬의 문하에 나가 問學하였는데, 이는 그의 伯兄 梅竹窩 益亨이 尙州周氏를 부인으로 맞이한 것이 인연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 때 二樂堂 周怡, 和齋 姜仁壽 등과 친하게 지냈다. 24세에 司馬 兩試(생원, 진사시)에 합격하고, 25세 되던 해에 비로소 부친의 명으로 옥동을 위시한 삼형제(옥동에게는 梅竹窩 益亨, 大谷 益明의 두 형이 있었다.)가 山海亭으로 南冥先生을 찾아가 스승으로 모셨는데, 부친인 생원공이 일찍이 남명선생을 만났을 때 아들들을 부탁하였던 연고에 따른 것이었다.

이로써 보면 옥동 형제는 남명선생의 초기 제자 집단인 '山海亭 그룹'의 일원이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때 옥동 형제는 남명선생께 『禮記』와 『春秋』를 주로 배웠다. 이로부터 35세에 이르는 근 10년 동안 남명선생의 학문 規矩에 따라 南冥道學의 요체에 접근하였는데, 진사 徐大樞와 '出處'에 관해 토론하기도 하고, 眞樂堂 金就成과 道義를 논하기도 하였다. 특히 覺齋 河沆과는 취향이 서로 통하여 서로 격려하며 학문에 침잠하였으며, 新庵 李俊民(남명선생의 생질)과 도를 강론하기도 하였다. 이 시기에 깨끗한 잔에 물을 담아 밤 새워 깨어있는 정신을 유지하는 수련도 하였는데 이는 옥동이 남명선생께 심취했던 정도를 알 수 있는 사례다.

이러한 학문적 노력의 결과 心經, 近思錄, 詩, 易, 春秋 등의 대의를 一身에 체득하였고, 여러 벗들과 논의하는 내용을 보고 남명선생이 특히 '계'에 르지 않고 힘써 공부하는(力學)' 사람으로 인정하

었다.

명종 16년(1561), 36 세 되든 해에 식년 문과에서 병과 제 2 인으로 합격하여 宦路에 들어섰고, 이듬해에는 山天齋로 남명선생을 찾아 뵙고 '敬義'의 요점에 대해 가르침을 받았다. 이 때 벼슬로는 承文院正字, 承文院博士 등을 거쳤는데, 학문의 蘊蓄을 게을리 하지 않아 守巖堂 崔永慶, 大笑軒 趙宗道 등과 도의에 대해 강론하며, 도학이 현실 행정과 어떻게 결합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지속적인 고민을 한 것으로 보인다.

明宗 21년(1566) 洪原縣監으로 文科重試에 합격하여 成均館 典籍으로 승진하였다. 이때 東阜 李浚慶으로부터 정치행정의 요점을 듣고, 洛村 朴忠元, 梧陰 尹斗憲, 思庵 朴淳 등을 찾아보았다. 아마 이 시기에 당시 조정에서 있던 뛰어난 학자관료들과 交遊한 것으로 보이는데 高峰 奇大升, 西丘 柳成龍, 開巖 金宇宏, 竹牖 吳滄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벼슬살이에 바쁜 가운데서도 자제들이나 사람을 보내어 남명선생께 問候하게 하였고, 東岡 金宇頤, 寒岡 鄭述를 찾아 의리와 예의에 대해 논하였다.

옥동은 벼슬살이에서 外職을 많이 맡았는데, 울산군수, 양양부사, 나주목사를 거쳤는데, 더러 誣陷을 받기도 했으나 치적이 높아, 병으로 사양함에도 불구하고 肅川府使로 임명되어 부임한 후 公館에서 세상을 떴다(1584, 선조 17년).

그런데 옥동의 행적에 관해서는 인식의 시각에 따라, 그 중요성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진다. 초기의 문자에는 退溪先生이나 서애 류성룡 등과의 관계는 그렇게 중요하게 부각되지 않았음에도 후

세에는 그 사실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것과 來庵 鄭仁弘과의 관계는 매우 돈독했으리라는 것을 능히 짐작할 수 있음에도 일언반구의 언급이 없는 것과 같은 것이다.

옥동의 아들 '溪 文勵, 醒狂 文劫 그리고 큰집의 從孫인 文弘道, 사위인 慕亭 裴大維 모두 내암의 문인으로 정치적 사회적 꺾박을 직·간접적으로 받았던 것을 고려해 보면, 옥동의 從遊에 강좌의 퇴계학파가 부각되는 것에는 다분히 정치적 고려가 들어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반대로 옥동을 위시한 남평문씨 가문이 강우 남명학파의 큰 지주였음을 짐작할 수 있게 하는 것이기도 하다.

옥동의 慕爾銘은 상주·문경지역에 거주하면서 江左의 대학자로 실학적 안목을 갖추고 있던 息山 李萬敷(안동권 유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덕천서원의 원장을 맡았던 것으로도 유명함)가 撰하였다. 息山은 옥동의 從遊로 옥동이 나주목사를 마치고 돌아와 臥龍岩 위에 집을 짓고 낙시로 세월을 보내려할 때 지은 德溪의 賦와 覺齋의 詩를 근거로 吳健과 河沆을 부각하였는데, 특히 덕계 학문의 篤實함을 높이고, 이러한 덕계와 옥동이 도의의 빛이었음을 들어 그 從遊의 높음을 은근히 보여 주고 있을 뿐, 다른 교유를 심상한 것으로 보고있다. 그리고 옥동 학문의 大略으로는 남명선생께 나아가 "수신의 요점(修身之要)"을 들었다는 것으로 요약하고 다른 구차한 學問歷程을 드러내지 않았으니, 필자는 息山의 식견을 믿는 마음이 있다. 敬義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남명학연구」 제 11 집 · 제 12 집 간행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에서는 지난해 10월 "남명선생 탄생 500주년 기념 학술대회"에서 발표됐던 논문들을 묶어 지난해 12월 30일 남명학연구 제 11 집으로 간행하였으며, 지난 2월 28일에는 「南冥詩에 나타난 산과 물의 의미-김종서」, 「남명의 碑誌文字에 대한 소고-장원철」, 「『학기유편』의 구성에 관하여-성현창」 등을 수록하여 남명학연구 제 12 집을 간행하였다.

□ 구입문의 :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전화 : 751-5187)



산 해 정(2)

- 산해정에서 세상을 꿈꾸는 남명 -

정 우 락
영산대 교수

나를 도망쳐서 산과 바다로 간다.

거기서 나 이전의 것, 그리하여 영원한 나 이후의 것을 만난다. - 설창수

남명 생애에 있어 산해정기(山海亭期)는 참으로 중요하다. 이 시기 그는 세상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진지하게 고민했기 때문이다. 정자의 이름에서 보듯 산(山)과 같이 높고 바다(海)같이 깊은 거대한 정신세계를 추구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로써 성글어질 수 있는 학문을 고인의 도를 계승하여 다시 밝히고자 하였기 때문에, 방의 이름을 '계명(繼明)'으로 할 수 있었다. 우리는 흔히 남명의 25세를 주목한다. 산사에서 성리대전을 읽다가 원나라 허형(許衡, 1209-1281)의 출처에 대한 언급을 통해 깨달은 바가 있어 남명이 위기지학(爲己之學)을 근간으로 한 학문에만 매진한 것으로 이해한다. 그리고 이후의 출사를 위한 과거시험은 단순히 어머니의 권유와 당부에 의한 것이라 한다. 그러나 남명의 출사에 대한 꿈은 쉽게 포기되지 않았다. 이것은 30세에 산해정으로 거처를 옮긴 후, 출사에 대한 꿈을 완전히 접은 37세까지 지속된다.

남명의 산해정 시절은 현실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확고히 했던 시기이기도 하다. 남명의 전 생애를 들어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여럿 있다. 사화가 가장 안

팍으로 관련되어 있었다는 것 역시 그 하나이다. 4세(1504)에는 갑자사화가 일어나 외계에 속하는 조지서(趙之瑞, 1454-1504)가 화를 당하고, 19세(1519)에는 기묘사화가 일어나 숙부 언경(彦卿)이 연루되어 파직된 지 얼마 안되어 돌아가신다. 또 45세(1545)에는 을사사화가 일어나 평소 친분이 두텁던 이림(李霖, ?-1546), 곽순(郭詢, 1502-1545), 성우(成遇, 1497-1579) 등이 연루되어 희생당한다. 특히 45세에 들은 친구들의 죽음에 관한 소식은 그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다. '선생께서 말씀하시다가 말이 이들에게 미치면 목이 메여서 눈물을 흘리기까지 하였다'는 언행 총록의 기록은 이를 잘 대변한다. 안으로는 가족이 연루되어 있었으며 밖으로는 친구와 외족이 연루되어 있었던 사화, 남명은 이 사화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서 희생된 이들을 추모하는 한편 자신의 정치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강화시켜 나갔던 것이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왜에 대한 인식도 명확히 했다. 바닷가에 살면서 해안에 출몰하는 왜적들을 여러 번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이같은 경험은 그의 작품에 '대마도'가 자주 등장되게 했고, 급

기야 조정 대신들의 안일한 대응을 비판하면서 제자들로 하여금 왜적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게 하였다. 책문제(策文題)에 이것은 분명히 나타난다. 즉 "임금이 벌칙 화를 내어 위엄을 더하려고 하면, '변방의 오랑캐를 자극해서 말썽을 일으킨다'라 하고, 뇌물을 받은 역사(譯史) 한 놈을 목베어서 나라의 기밀을 누설하는 일을 엄히 단속하려 하면 '겸손한 말로 온순하게 대하는 것이 낫다'라고 한다. 사정이 이와 같으니 과연 적을 제압할 말이 없는 것이고 또한 적의 침략을 막아낼 계책이 없다는 것인가? 나는 이에 대한 계책을 듣고자 한다." 고 한 것이 그것이다. 왜에 대한 남명의 이같은 경계가 그의 사후 문하에 수많은 의병장을 있게 했을 것이다.

이처럼 남명의 산해정기는 그의 역사인식을 예각화 할 수 있는 경험적 바탕이 되었다는 측면에서 주목된다. 이 시기 남명이 지은 시편들은 어떤 것이 있으며,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 산해정에서 창작하거나 훗날 산해정 시절을 회고하면서 지은 남명의 시는 다양하다. (1)「숙안에 게 부침(寄叔安)」, (2)「산해정에서 우연히 읊조림(山海亭偶吟)」, (3)「산해정에서 주경유

의 시에 차운함(在山海亭次周景游韻), (4)「산해정에 대를 심으며(種竹山海亭)」, (5)「행각승에게 줌(贈行脚僧)」, (6)「판서 정유길에게 줌(贈判書惟吉)」, (7)「이우옹이 고향으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聞李崑翁還鄉)」, (8)「산해정에 굶은 비는 내리고(山海亭苦雨)」, (9)「산해정에서 대학 팔조가의 뒤에 씀(在山海亭書大學八條歌後)」, (10)「석천자에게 줌(贈石川子)」, (11)「구암사에 씀(題龜巖寺)」, (12)「진극인의 죽음을 슬퍼하며(輓陳克仁)」, (13)「함허정(涵虛亭)」, (14)「사마소의 잔치에서(司馬所宴)」 등이 그것이다. 이 가운데 (2), (4), (6), (7), (8), (9), (14)는 지난 번 - 산해정(1), 깊은 산 높은 바다, 고뇌하는 남명(『남명원보』 23, 2001.8) - 에서 이미 언급하였으니, 여타의 작품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우선 눈의 띄는 것이 「재산해정차주경유운(在山海亭次周景游韻)」이다. 유가적 이상정치인 왕도정치에 대한 관심이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可矣豐基倅 行驂繫我門
箇箇談王曰 於今爲世尊

아름다울 손, 풍기(豐基) 군수여!
내 집 문을 지나다 말을 매었네.
왕도(王道)를 날날히 담론하니,
오늘날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 받는다네.

경유는 주세붕(周世鵬, 1495-1554)의 자이다. 그는 1543년 풍기 군수로 있을 때 우리 나라

최초의 서원인 백운동서원(白雲洞書院)을 세운 사람으로 유명하다. 위의 시는 주세붕이 남명의 산해정을 찾아 왕도에 대하여 이야기했던 일단을 보여준다. 왕도정치는 인(仁)과 덕(德)을 바탕으로 하는 유가의 이상적 정치 형태이다. 덕을 정치의 원리로 삼는 사상은 이미 서경(書經)이나 논어 등에서 보이지만, 왕도를 패도(覇道)와 대비시켜 명확하게 말한 것은 전국시대의 맹자(孟子)였다. 그는 인의(仁義)라는 덕을 기반으로 하여, 왕도와 패도를 엄격히 구별하고, “힘으로써 인을 가식하는 자는 패(霸)이다. 패는 반드시 대국(大國)을 가진다. 덕으로써 인을 행하는 자는 왕이다. 왕자는 대(人)를 기대하지 않는다. 힘으로써 사람들을 복종시키는 자는 심복(心服)시키는 것이 아니며, 덕으로써 사람들을 복종시키는 자는 마음속으로 참되게 복종시키는 것이다”라고 「공손추편(公孫丑篇)」에서 갈파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인의의 덕이 안으로 충실하여 그것이 선정(善政)으로 나타나는 것이 왕도이며, 인정(仁政)을 가장하고 권력정치를 행하는 것은 패도라는 것이다. 맹자의 왕패론이 왕도의 요인으로 인에다가 위(威)를 더함으로써 패도정치의 존재의의를 시인했던 순자(荀子)의 것보다 관념적이긴 하지만, 유가에서 지속적으로 지지받아 왔던 대표적 정치형태였다. 왕도정치에 대한 남명의 생각은 훗날 조정에 올린 「무진봉사」, 「을묘사직소」 등의 상소문에도 잘 나타난다.

(가) 전하께서 과연 경(敬)으로써 몸을 닦으면서, 하늘

의 덕에 통하고 왕도를 행하셔서, 지극한 선에 이른 뒤에 그치신다면, 밝음과 정성됨이 함께 나아가서 사물과 내가 겸하여 다할 것입니다. 이것을 정치교화에다 베푸는 것은 바람이 일어나자 구름이 물러가는 것 같으니, 아래 백성이 본받는 것이 반드시 이보다 더한 바가 있을 것입니다.

(나) 다른 날 전하께서 왕천하(王天下)의 지경에 이르도록 덕화를 베푸신다면 저는 마굿간의 말석에서나마 채찍을 잡고 그 마음과 힘을 다해서 신하의 직분을 다할 것이니 어찌 임금을 섬길 날이 없겠습니까?

(가)는 「무진봉사」의 일부이고, (나)는 「을묘사직소」의 일부이다. 즉 군주가 왕도정치를 시행하는데 있어서 먼저 '경'으로 자신을 닦아야 한다고 하면서, 스스로의 몸을 닦은 후에 백성을 다스린다면 군주와 백성이 함께 지극한 경지에 이를 것이라 했다. 이 때 교화를 베푼다면 그야말로 바람과 구름의 관계처럼 백성들은 모두 본받을 것이라고 역설하였다. 이처럼 군주가 덕으로 사람을 다스리는 왕도정치가 실행된다면 자신은 기꺼이 관직의 말석에서라도 소임을 다할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이 글들이 남명의 산해정기에 쓰여진 것은 아니라 해도 그의 왕도정치에 대한 열망을 분명히 읽을 수 있다. 또한 그의 불출사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강고했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비로소 알게 한다. 인의(仁義)라는 덕에 의하여 위기적 현실을 바로잡고, 사회에 질서와 안정을 부여하고자 하는 왕도는 남

명의 관점에서는 요원한 것이었고, 이것이 결국 그의 불출사의지와 함께 강한 비관의식으로 성장하였다. 남명이 살아있을 때 왕천하의 현실은 오지 않았고, 따라서 남명은 유가적 출처의식에 의거하여 출사하지 않았다.

남명은 산해정에서 석천 임억령(林億齡, 1496-1568)을 만나기도 했다. 해남(海南) 출신 임억령이 산해정을 찾아 와서 남명을 보고는, '길이 매우 험하더이다'라고 하자, 남명은 웃으며 '그대들이 밟고 있는 벼슬길이 아마 이보다 더 험할 것입니다.'고 하였다 한다. 험한 산길을 벼슬길에 비유하여 벼슬길에 비하면 산길의 험난함은 아무 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자 함이었다. 임억령에게 남명의 이 말이 어떻게 작용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1545년 그가 금산군수로 있을 때 을사사화가 일어나 소윤(小尹)인 동생 백령(伯齡)이 대윤(大尹)의 선배들을 내몰자 자책하며 벼슬을 사직하고 은거하고 만다. 당시 출세욕에 눈이 먼 동생을 타이르기 위하여 서울로 올라갔으나 백령이 거절하자, 억령은 동생이 보는 앞에서 초석(草席)을 절단하고 의절을 선언한다. 남명은 이같은 임억령을 생각하면서 「증석천자(贈石川子)」라는 작품을 남긴다.

今有石川子	其人古遺節
芙蓉儘簞家	何言大小別
昔年要我乎	山海之蝸穴
看來豆子熟	碗琖東西列
石川千木奴	破甘香滿舌
歸來花判事	其行不改轍
雖飢不食言	人益絲力爐
尙君明逸成	有懸非解紐

지금 석천자가 있는데,
그 사람됨은 옛날의 남은 절개라네.
연꽃은 모두 높게 솟아 엷매이지 않는데,
어찌 크고 작은 걸 구별해서 말하겠나?
옛날 나를 찾았었지,
산해정 그 작은 집으로.
콩이 익을 그 무렵이었는데,
술자리를 동서로 차려 놓았었지.
석천(石川)의 천 개의 굴,
단 것을 깨무니 향기 혀에 가득하다.
돌아와 꽃 키우는 일,
그 행실 고치지 않는구나.
비록 굶주려도 식언을 하지 않으니,
사람들 사이에서 말쟁이 없도나.
그대의 현명하고 편안한 훈계 숭상하노니,
사무치는 그리움 풀 길이 없네.

석천은 임억령의 호이다. 남명은 산해정에서 만났던 임억령을 회고하면서, 그의 인품을 칭송했다. '옛날의 남은 절개', '높게 솟아 엷매이지 않는 연꽃', '입안에 가득한 굴의 향기'가 모두 그

것이다. 그리고 그 이유를 밝히기도 했다. '돌아와 꽃 키우는 일, 그 행실 고치지 않구나'가 그것이다. 세상에 나아간 일이 있느냐 정치현실에 대한 부당함을 느끼고 산야로 돌아와 자신을 지킨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러나 임억령의 퇴거가 남명의 그것과는 사뭇 달랐다. 남명이 왕도정치가 실행되지 않고, 또한 왕도정치 실행에 대한 군주의 의지를 읽지 못했기 때문에 출사하지 않았다면, 임억령은 동생 백령의 정치적 행위에 의한 것이었다. 그 뒤 임억령이 1552년 동부승지에 등용되어 병조참지를 지내고, 강원도관찰사를 거쳐 1557년에는 담양부사가 되었던 사실에서도 잘 나타난다. 여기서 우리는 이 작품의 창작 연대를 대체로 짐작할 수 있다. 즉 이 작품이 임억령의 '귀래화판사(歸來花判事)'를 칭송한 것이니 임억령이 벼슬을 사양한 후이며, '석년요야호(昔年要我乎), 산해지와혈(山海之蝸穴)'이라고 하였으니 산해정 시절 이후, 그리고 임억령이 다시 벼슬한 1552년 이전으로 보아 남명의 퇴거사 시절 초기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남명은 산해정에 살면서 이처럼 현실에 대한 대단한 관심을 가졌다. 주세붕과 같이 왕도에 대하여 이야기 하는 사람도 기리기도 하고, 임억령과 같이 벼슬을 버리고 초야에 숨은 사람을 칭송하기도 했다. 주세붕에 대해서는 현실에 대한 그의 적극적인 지향이, 임억령에 대해서는 현실에 대한 그의 소극적인 지향이 나타난다고 하겠으나 모두 세상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표명이다. 이처럼 그의 세계가 현실로 열려 있었다고는 하나, 이것이 정신세계의 굳건한 확보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남명은 알고 있었다. 즉 자신의 정신을 어느 한 곳에 정착시킬 때 비로소 그 정신은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사실을 「중행각승(中行脚僧)」을 통해 보여주었다. 문집에는 이 작품의 창작배경을 밝혀두고 있다. “선생이 산해정에 있는데 어떤 중이 와서 뵈었다. 그가 온 곳을 물었더니, ‘삼각산에서 왔습니다’ 라고 했다. 하루 종일 머물러 앉아 있다가 하직하고 갔다. 그 다음 날 이른 아침에도 또 왔다. 이렇게 한 지 삼일 된 아침에 하직하면서 말하기를, ‘소승은 옛날 살던 산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하고는, 시축(詩軸)을 내밀면서 절구 한 수를 청했다. 선생은 젊은 날 삼각산에서 공부한 적이 있으므로, 중의 말을 듣고 옛날 일에 느껴 이 절구를 지었다.” 는 것이 그것이다. 노래를 들어보자.

渠在漢陽西 攝來 三角山
寧還寄語 立脚向今安

나도 한양 서쪽에 살면서,
삼각산을 오갔었지.

정녕 도로 말 부치노니,
이젠 편안히 다리를 붙여야지.

남명이 젊은 시절의 대부분을 서울에서 보낸다. 4 내지 7 세에 아버지를 따라 서울로 올라가게 되는데, 연화방(蓮花坊:현 종로 4-5 가) 근처에 살았을 것으로 추정한다. 그리고 26 세 되던 해 3 월에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고향 삼가로 다시 내려오게 된다. 그러니까 기구와 승구의 언급은 26세 전에 서울생활을 하면서 삼각산에 오갔던 것을 기억한 것이다. 이 작품에서 중요한 것은 절구와 절구이다. 여기에는 남명의 번뜩이는 예지가 서려있기 때문이다. 삼각산에 사는 '행각(行脚)' '승이 시를 지어달라고 했으니 여기에 의거하여 '입각(立脚)' 하라고 당부하고 있다. '행각'은 떠돈다는 것이고, '입각'은 정착한다는 것인데, 이 두 대립된 단어를 떠나는 중에게 적용시킴으로써 정신적 안착을 당부한 것이라 하겠다. 서울에서 돌아와 산해정에 정착한 자신과 대비시키면서, 산해정을 떠나 다시 삼각산으로 돌아가 정착하라는 것이다. 행각은 자유롭게 보이나 오히려 얽매임이 있고, 입각이 얽매어 보이나 오히려 정신적으로는 더욱 자유롭다는 것이다. 이것은 다름 아닌 자신의 세계를 확고하게 가짐으로써 비로소 정신적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보이고자 함일 것이다. 역시 산해정에서 지은 「기숙안(寄叔安)」에서도 이같은 의식을 감지할 수 있다.

梅上春候動 枝間鳥語溫
海亭山月白 何以坐吾君

매화나무에 봄 기운이 감돌고,

가지 사이엔 새 울음소리 따스하구나.
산 속의 달빛 산해정에 환한데,
어떻게 하면 그대 불러 앉게 할 수 있을까?

숙안은 박흔(朴忻)이라는 사람의 자라고 한다. 세상에 다시 봄이 와서 사물에는 기운이 맥동(脈動)하고 있다. 기구와 승구는 이를 말하고자 함이다. 절구에서 보이는 것처럼 산해정에 달빛이 비쳐 밝다고 했으니 사물에 의해 촉발된 감흥이 더욱 고조되었다. 그러나 절구에 보이듯이 박흔은 보이지 않아 안타깝다. 박흔이 어떤 인물인지는 알 수가 없으나 절구의 '좌(坐)'는 「중행각승」 절구의 '입(立)' 과 같은 의미를 내포한 것으로 보아, 정신적 안착을 말한 것이 아닐까 한다. 일찍이 남명은 32 세 되던 해 서울에 있던 집을 때부 이공량에게 부탁하고 김해로 내려온다. 이 때 친구 성운(成運, 1497-1579)은 남명에게 「기건중(寄健仲)」이라는 시로 이별한다. '큰 기러기는 높은 날개 짓하며 남쪽으로 날아가는데(冥鴻矯翼向南飛), 정녕 가을 바람 나뭇잎 떨어지는 때였네(正值秋風木落時). 땅에 가득한 곡식을 닭과 오리까 찌는데(滿地稻粱鷄鶩啄), 구름 아득한 하늘 밖에서 배고픔 잊었구나(碧雲天外自忘飢)' 가 그것이다. 서울에서 김해로 내려가니 '해남비(向南飛)'라고 했을 터인데, 그 모습을 '큰 기러기 높은 날개 짓'로 표현하고 있다. 성운이 정신적 안착지를 찾아가는 남명을 본 것이 아닐까? 진정한 정착은 폭발적인 운동의 원천일 수 있다는 믿음과 함께 말이다. 敬義

보이지 않는 눈을 밝혀 주는 '발운산(撥雲散)'

홍 승 헌
한약사 / 원광대 강사

지난 호에 남명 선생께서 '발운산'에 대한 언급으로 출사하신 퇴계선생의 심정을 물으셨을 때 퇴계 선생께서 당신의 마음을 전하셨던 '당귀'에 대하여 소개 한 바 있다. 이번 호에는 발운산(撥雲散)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발운산은 의학입문(醫學入門)에 먼저 등장하는 처방으로 알려져 있다. 후에 『동의보감(東醫寶鑑)』에서는 외형편의 제1권 눈(眼) 항목에 소개 되고있다. 『동의보감』의 기록에 따르면 풍독(風毒)이 치밀어 올라 눈이 잘 보이지 않고 예막(翳膜)이 눈알을 가리며 가렵고 아프고 눈물이 많이 나오는 증상을 치료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본 방은 시호, 강활, 방풍, 감초 등의 약물로 구성된다. 강활(羌活)과 방풍(防風)은 풍습(風濕)을 없애고 시호는 맑은 양기를 위로 끌어올리는 효능이 있는 것으로 한방에서 인정한다. 그런데 필자가 본 방(方)에 흥미를 갖는 이유는 이 처방의 효능이나 응용에 큰 관심이 있어서는 아니다. 그렇다고 발운산이라는 이름이 가지는 처세와의 관련성이나 처방의 의미, 또는 선생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진심 등을 거론하기에도 사실 어려움이 너무 크다. 다만 한약을 전공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이 나라의 큰 스승이신 두 분께서 시대를 이야기하고 처신을 생각할 때 이렇듯 한약을 소재로 삼았다는 사실에 한편으로는 놀라움을 또 한편으로는 기쁨을 다른 한편으로는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다.

발(撥)은 '제하다' 또는 '다스리다'의 의미가 있으니 구름을 다스리고 제거하여 흩어지게 하

는 약이라고 이름을 풀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기도 하다. 풍사(風邪)는 오늘날의 전염성과 관계 있는 것으로 본다. 풍독이 치밀어 오른 것은 전염성 안 질환을 생각할 수 있고 예막은 그에 따른 염증과 관련 지을 수 있다. 그래서 구름에 얽히듯 침침하고 아픈 상태에 있는데 그러한 질병을 치료하여 구름 걷히듯 환하게 한다면 참으로 상쾌할 만한 일이다. 사실 우리 눈알을 가리고 침침하게 하는 것이 어찌 눈병뿐이라. 무지하여 앞이 캄캄하기도 하겠거니와 똑똑한 사람들도 때로 욕심에 눈멀고 고집에 눈멀고 사람에 가려 앞을 못 보기도 한다.

어쩌면 선생님은 그 시대 지식인들이 정작 눈병은 없되 앞을 제대로 보지 못 하는 이러한 눈병 아닌 눈병상태에 있다고 진단하셨는지도 모를 일이다. 그래서 선생님은 그 눈병을 치료할 약을 구하시고자 하였음직하다. 그런데 정작 당시 발운산의 역할을 할 시대의 명약은 선생님 당신이셨던 것은 아닐까. 선생님으로부터 시간적으로 500년의 거리에 살고 있는 오늘이지만 앞을 제대로 분간하지 못하는 세상의 병은 오히려 더 창궐하고 있다. 이러한 병을 치료할 오늘날의 발운산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한방에서의 명약(名藥)은 수천년을 거쳐도 그 쓰임이 용하다. 참으로 소중하고 귀한 것은 시대를 구별하지 않는 법이다. 이 시대의 풍독(風毒)이 치밀어 올라 눈이 안보이고 예막이 눈알을 가리며 아프고 가렵고 눈물이 나는 이 지독한 병을 치료할 명약(名藥)은 바로 선생님의 가르침이 아닐까. 敬美

【자유기고】

지리산과 남명학관

오 이 환
경상대학교 인문학부 교수

퇴계·남명 탄신 500주년 기념행사로 작년 9월 26일 한국 정신문화연구원에서 개최된 학술회의의 발표논문집을 입수하여 읽어보던 중, 경상대학교 한문학과 최석기 교수가 쓴 「남명학과의 지리산유람과 남명정신 계승양상」이라는 논문의 주석 8번에서 나의 견해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것을 접했다. 그 부분의 본문에서는 '남명은 58세 때까지 지리산을 12번 유람하였는데'라 하고, 그 주석에서 '오 이 환 교수는 「南冥遺跡 三洞辨證」(『南冥學研究』 제10집, 경상대 남명학연구소, 2001)에서, 아래 인용문의 '人靑鶴神凝洞者'을 청학동·신응동을 각각 3번씩 유람한 것으로 해석해 모두 15번 지리산을 유람했다고 보았다. 그러나 필자는 원문을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되어 있다.

나는 최 교수가 언급한 위의 논문 가운데서 흔히들 말해지는 남명과 지리산과의 관계에 대해 자신이 조사해 본 결과 가지게 된 견해를 포괄적으로 피력한 바 있었는데, 남명의 「유두류록」 말미에 언급된 지리산 유람 경력 부분 전체를 번역 인용한 후, 그 주석 14번에서 남명이 '靑鶴·神凝洞으로 들어간 적이 세 번'

이라 언급한 부분을 청학동과 신응동을 합해 세 번이 아니라 청학동과 신응동을 각각 세 번씩 들어갔다고 해석하는 이유에 대해 비교적 자세히 설명하였으나, 최 교수는 나의 근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코멘트도 하지 않았다. 이 논문이 이미 탈고되었으나 아직 발표되기 전이었던 2000년 7월 22일에 방영된 KBS 역사스페셜 프로에 「조식이 지리산에 열두 번 오른 까닭은」이라는 것이 있었다. 최 교수와 나는 모두 이 프로에 출연하였는데, 당시 나는 담당 PD에게 '열두 번'이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의견을 말한 바 있었지만 전문가도 아닌 그는 웬일인지 나의 의견을 선선히 받아들여려고 하지 않았다. 당시로서는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이와 같은 프로에 횡수가 그다지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는 점에 대해 나로서도 동의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굳이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지 않고서 적당히 얼버무리고 말았다. 그러나 최 교수는 남명을 비롯한 우리나라 선인들의 지리산 유람과 관련하여 이미 몇 편의 논문을 발표하였고 단행본까지 출간하여 이 방면에 조예가 깊은 사람으로서 자타가 인정하는 터인데, 최 교수의 한 마디로 말미암아 이제 남

명이 지리산에 들어간 횡수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어지고 말 상황이 되었으니, 이 문제는 더 이상 대수롭지 않은 일로 치부해 버릴 성질의 것이 아닌 듯하다.

현재의 내 의견이 반드시 그 논문을 발표하던 당시와 같은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최 교수의 글을 읽고서 여러 달이 지난 지금에 이르러서도 쉽사리 수긍이 가지 않는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는 달라진 점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사실을 말하자면, 나도 그 논문을 쓰기 전까지는 문제의 초점이 된 그 부분을 최 교수와 같이 해석하고 있었다. 그러한 생각을 바꾸게 된 계기는 이미 주석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남명이 「유두류록」 4월 23일 조에서 神凝洞에 대해 언급하며, '예전에 成仲慮와 더불어 상봉으로부터와 찾은 적이 있었는데, 삼십년에 가까우며, 후에 河仲礪와 더불어 여름내 와서 거처한 적이 있었는데, 또한 20년이 넘었다. (昔與成仲慮自土峰來尋, 近三十載, 後與河仲礪全夏來栖, 又出二十載)'라고 스스로 말하고 있는 대목에 주목한 까닭이었다. 「유두류록」은 남명이 58세 때 쓴 것이므로, 남명은 그로부터 30년 전에서 20년 전까지, 즉 그의

나이 28 세에서 38 세까지의 사이에 적어도 이미 두 차례는 이 절을 방문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다.

남명은 「유두류록」 말미에서 자신이 지리산을 찾은 장소와 그 횃수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어찌 오직 산을 탐하고 물을 탐하여 가고 오는 번거로움을 꺼려하지 않은 것이겠는가? 한평생 지녀온 계획이 오직 華山의 반쪽을 빌어 늘그막 여생을 마칠 장소로 삼고자 할 따름이었다. 일이 마음과 어긋나 머무를 수 없음을 알고서, 서성거리고 되돌아보며 생각하다가 눈물을 흘리면서 나오곤 했던 것이니, 이렇게 하기 열 번이었다.' 하고, 또한 자신이 일찍이 지었던 시를 소개하며 '황소 갈빗대 같은 두류산 열 번 답과하더니(頭流 破黃牛脇)'라고 하였다. 여기서 언급된 '華山의 반쪽'이란 『書經』 周書, 武成篇에, 그리고 '黃牛'란 『周易』 遯卦 六二 및 革卦 初九의 爻辭에 출전을 두고 있음은 역시 상계 줄고의 주석에서 언급한 바 있다. 이것들은 모두 은둔을 의미하는 말로서, 남명이 이러한 장소를 찾은 이유가 역시 주로 만년을 보낼 은둔의 장소를 물색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방증해 주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볼 때, 28 세에서 38 세 사이의 나이란 '늘그막 여생을 마칠 장소(終老之地)'를 찾으러 다니기에는 너무나 이른 나이가 아니겠는가?

역시 前掲 줄고에서 이미 언급한 바이지만, '頭流 破黃牛脇'이라는 구절은 남명이 52 세 무렵에 쓴 「次湖陰題四美亭韻」의 제2수 제4연에 보이는데, 이시의 제1수에는 '깊은 골짜기 백 번 뚫고 들어갔어도 몸은 아직

나그네이고(百穿深壑身猶客)'라는 구절이 보인다. '破'와 '百穿'은 유사한 표현으로서, 이 역시 남명이 자신의 은거할 장소를 찾아 깊은 산 속을 수없이 헤매고 다녔으나 아직 정착할 곳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남명이 만년을 보낼 장소를 찾아다닌 것은 주로 김해 생활을 청산하고서 고향인 삼가로 돌아온 중년 이후부터이니, '두류산을 열 번 답과'했다 함은 그러한 목적으로 위에서 열거한 장소들을 방문했던 것을 대충 언급한 것이라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굳이 청학·신응동을 각각 세 번씩이라고 해석하지 않더라도 남명이 중년 이전에도 지리산을 여러 차례 방문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남명이 말하는 청학동, 즉 지금의 쌍계사 위 불일폭포 일대와 신응동, 즉 지금의 신흥마을 왕성초등학교 일대는 같은 하동군 화계면에 위치하여 지도상의 거리로는 비교적 가깝지만, 진입하는 코스가 전혀 다르고 중간에서로 연결되는 지름길도 없으므로, 남명이 이 일대를 방문할 때마다 두 장소를 모두 들렀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다. 당시로서는 「유두류록」에서 남명 일행이 경유하였듯이 쌍계사 입구에서 계곡 길을 따라 七佛溪를 지나 신응사로 접근할 수밖에 없었을 터인데, 쌍계사에서 칠불계, 즉 지금의 신흥삼거리까지의 거리는 약 5.5킬로미터이며, 청학동은 쌍계사로부터 가파른 산길을 타고서 다시 3킬로 정도 더 올라간 지점에 위치해 있어서 누구나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니다. (성락건 저 「남

덕의 산」; 1/10 만 도로지도 참조) 이 글 4월 19일 조에서 남명은 자신이 과거 청학동의 선경에 세 번 노닐었음을 말하면서 일행 중 다른 사람들의 예를 들어 '빠어난 절경에는 그에 상응하는 정도의 眞訣이 없이는 神明이 받아들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고 말하고 있으니, 당시로 보아서 청학동은 그만큼 일반 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이었다.

남명의 28 세부터 38 세까지의 시기는 삼가 관현동에서 부친의 삼년상을 마치고 의령 자갈산의 명경대에 왕래하면서 독서하다가, 이윽고 김해의 처가 동네로 옮겨 산해정을 짓고 지내며 때때로 과거에 응시하고 처음 참봉 벼슬을 제수 받은 시기까지이다. 필자는 작년 9월 25일과 10월 20일에 방영된 KBS 다큐멘터리 「동방의 빛 남명 소식」에서 경상대 한문학과와 이상필 교수가 명경대를 안내하며 그곳이 남명 학문의 일대 전환이 이루어진 현장이라고 강조하여 설명하는 것을 시청한 바 있다. 그러나 연보 등에 의하면, 남명 학문의 큰 전환이 이루어진 것은 25 세 때 벼슬과 더불어 산사에서 과거 공부를 하다가 『성리대전』 속에 나오는 許魯齋의 문구를 읽고서 爲之學에 전념하기로 결심한 때이며, 당시는 남명이 주로 서울에서 생활하던 시절이니, 그러한 발언 역시 무엇에 근거한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또 한 가지 언급해 두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작년 10월 23일에 개관한 남명학관 입구의 표지석 뒷면과 덕산의 산천재 입구 관리사 앞 광장의 詩碑에 새겨진 「題德山溪亭柱」의 번역문 문제

이다. 이 두 글은 모두 경상대 한문학과와 허권수 교수가 번역하고 같은 학과 강사 윤효석 씨가 글씨를 쓴 것이다. 후자는 경상남도 측이 남명선생 탄신 500주년을 기념하여 남명과 관련한 장소들에다 남명제 이전까지 모두 열다섯 개의 시비를 세울 계획을 수립하고서 그 해 6월경에 사단법인 남명학연구원 측에다 사업을 위촉해 왔었던 것인데, 당시 연구원으로서는 국제학술회의 행사가 목전에 닥쳐 있어 그 작업을 병행할만한 여유가 없었던 지라 결국 경상대 남명연구소로 위촉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 두 비석에 새겨진 번역문과 같은 해 10월중에 출판된 개정판 『남명집』에 수록된 허 교수의 번역문은 그 의미에 있어서는 다르지 않으나 표현 상에 각각 조금씩 차이가 있다. 먼저 起句의 '請看千石鍾'에 대해, 책에서는 '천 섬을 담을 수 있는 큰 종을 보소서!'라고 번역하였고, 산천재 시비에는 '천 섬 들어가는 큰 종을 보소서!', 남명학관 앞에는 '천석들이 큰 종을 보소서'라고 되어 있다. 즉 '천 섬의 곡식을 담을 수 있는 큰 종을 보라'는 뜻으로 해석한 것이다. 그런데 한자의 石에는 부피의 단위(量名)로서의 의미와 무게의 단위(衡名)로서의 의미가 있다. 또한 한자의 鍾에도 분명 곡식을 담는 부피의 단위로서의 의미가 있으나, 이 시의 경우는 물건을 담는 도구를 말한 것이 아닌 만큼 천 섬의 곡식과는 상관이 없고, '천 석이나 되는 쇠를 부어 만든 저 종을 보라'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承句의 '非大扣無聲'에 대해서는 '크게 치지 않으면 소리 없다

오'라고 하여 세 번역이 모두 일치하고 있다. 그런데 남명집의 이 부분 주석에서 허 교수는 『禮記』『學記篇』에 "질문에 잘 답하는 것은 종을 치는 일과 같다. 작게 치면 작게 울리고, 크게 치면 크게 울린다"라는 말이 있다. 즉, 선생은 종이고 학생은 치는 사람이다. 질문을 잘하면 좋은 대답을 들을 수 있다는 뜻이다.' 운운이라 하였다. 종 치는 것을 비유로 삼았다는 점에서 유사한 표현이기는 하나, 사제간의 문답법을 설명한 『예기』의 이 구절이 과연 出仕의 문제와 관련한 남명 시의 出典이 될 수 있을지 다소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고 하겠다.

그 轉·結句의 '爭似頭流山, 天鳴猶不鳴'에 대해, 『남명집』에는 '어떻게 하면 두류산처럼/ 하늘이 울어도 울지 않을 수 있을까?', 산천재 시비에는 '어떻게 해야만 두류산처럼/ 하늘이 울어도 울지 않을까?', 그리고 남명학관 표지석에는 '어떻게 하여야 두류산처럼/ 하늘이 울어도 울지 않을까?'라고 되어 있다. 이 구절 첫머리에 보이는 '爭'자는 『助字辨略』에 '爭, 俗云怎, 方言如何也'라고 설명된 바와 같이 '어찌 즘' 즉 오늘날 白話文의 '怎麼'와 같은 뜻인데, '怎'과 '爭'은 옛 중국 음이 거의 같으므로 古代에 서로 통용한 것이다. 그런데 허 교수의 해석은 남명의 시적 자아인 천석종의 소리가 웅장하기는 하나 영원한 침묵을 지키고 있는 지리산의 경지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여 지리산을 흠모해 닮고 싶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렇게 되면 같은 시 가운데서 첫 두 구절은 시인이 제3자의 입장에 서서 천석종을 바라

보라고 했다가, 뒤의 두 구절에서 다시 스스로 종의 입장에서 주관적 소망을 피력하는 셈이 되어 시점의 전환이 이루어지게 되며, 그렇지 않다면 앞의 두 구절 역시 천석종이 제3자에게 스스로를 보아달라고 선전하는 형세가 되어, 어느 쪽으로 보아도 궁색한 해석이 되고 만다.

이 시는 '壁立千仞'으로 일컬어져 온 남명의 기상을 잘 드러낸 대표작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에 대해 象村 山欽 같은 이는 '그 詩韻이 豪壯할 뿐 아니라 自負 또한 알지 않다'('晴窓叢談'下)고 평하였다. 허 교수의 해석은 이러한 평가에 훨씬 못 미칠 뿐 아니라, 때 구절마다에 논란의 여지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러므로 나는 천석종과 지리산을 대등한 위치에 두고 또한 시 전체에서 제3자의 관점을 취해, 이 구절을 '어찌 두류산을 닮아/ 하늘이 울어도 오히려 울지 않는가'라고 번역하는 편이 남명의 原義에 가까우리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 표지석을 지나 남명학관의 정면 입구를 들어서면, 오른쪽 벽면의 板石에 새겨진 「南冥學館記」가 눈에 들어오는데, 그 역시 허권수 교수의 글과 윤효석 씨의 글씨로 되어 있다. 그 기문의 말미는 '앞으로 이 南冥學館은 南冥學 研究의 總本山으로서 뿐만 아니라 나아가 우리나라의 學問과 文化를 研究普及하는 中心基地로서 機能을 충실히 할 것이다'라고 맺어져 있다. 나는 이 구절 또한 적절하지 못한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남명학 연구의 총본산'이라는 말이 대외적으로 불필요한 잡음을 불러 일으킬 소지를 내포하고 있으며,

국학연구의 중심기지가 된다는 표현은 한문학과가 내내 이 건물을 장악하겠다는 의지를 내포하고 있어 대내적 불협화음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경상대학교가 역사적으로 남명학과의 중심지였다고 할 수 있는 진주에 위치한 국립종합대학교이며, 이 건물을 짓는 과정에는 이런저런 이유로 애초의 예산보다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결과적으로 건물 값만 46억 원이나 들었으니, 외형적인 면에서는 남명학의 총본산이라 자칭해도 큰 무리가 없겠다. 그러나 퇴계학 쪽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면, 경북대·안동대·단국대 등 세 군데의 대학에 퇴계의 이름을 단 연구소가 있으나 그 어느 것도 퇴계학 연구의 총본산임을 자칭하고 있지는 않으며, 굳이 그러한 명칭을 붙인다면 사단법인 퇴계학연구원이 전국적 혹은 세계적인 차원에서 퇴계학 연구의 중심적 위치를 지켜 왔다고 볼 수 있겠다. 뒤늦게 출발한 남명학의 경우도 남명학연구원이 최초로 설립되었을 뿐 아니라 그것이 사단법인으로 된 배경에도 퇴계학연구원의 모델을 따른 면이 없지 않은 것이다. 하물며 지금은 남명학 연구가 확산되어 국내 외적으로 연구단체가 여러 개 설립되어 있는 터인데, 남명학연구소 측이 총본산을 자칭함은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국립대학교에 소속된 연구소가 특정 인물의 명칭을 달아 그것만을 연구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지 않으니 만큼, 명칭이 표방하고 있는 이외의 분야에까지 연구 범위를 확대한다는 것 자체에는 그다지 무리

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남명학연구소는 처음 '남명학의 제분야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가,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국학 관계 논문 및 국학과 관련한 동양학 관계 논문'에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간행된 이 연구소의 기관지 『남명학연구』 제 11집(2001년)의 뒷면에 보이는 후원회 회원 모집 광고에서는 '우리 영남 지역 國學研究의 중심기관이 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고 하고, 한적·고문서 등의 기증을 요청하는 광고에서는 남명학관의 완성과 더불어 '이제 명실공히 영남 지역 국학 연구의 본산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고 선포하고 있으니, 남명학연구소의 중심이 국학에 두어져 있음은 분명하다고 하겠다.

이왕 연구범위를 확대하기로 한다면 왜 동양학 일반은 안되고 국학까지로 한정해야 하며, 또한 '국학과 관련한 동양학'이란 표현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는 결국 남명학연구소의 설립 이래로 한문학과가 그 주도권을 잡아 자기중심적으로 연구소를 운영해 온 사실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것이다. 남명학관은 현재 3층에 있는 상대적으로 작은 방 세 개를 국제지역연구원·경남문화연구원·인문학연구소 등 세 개의 인문사회계열의 학내 연구 기구에 내어주고 있는 이외에는 대체로 다 남명학연구소가 사용하고 있다.

특히 남명과 관련된 이름을 붙인 보통 연구실의 두 배 혹은 그 이상 되는 넓이와 고급 내장을 갖춘 네 개의 공간은 '실제로 일할 사람이 들어가야 한다'는 명

분으로 연구소의 부장들에게 배정되었는데, 다른 전공의 부장 한 명에게 배정된 따로 떨어진 천왕실에는 아직 본인이 들어오지 않고 있고, 그 반대쪽 끝에 함께 인접한 산천실·뇌룡실·산해실은 각각 한문학과와 장원철·이상필·최석기 교수에게 배정되었으나, 장 교수는 끝내 고사한 까닭에 몇 달이 지난 후 마침내 소장인 허권수 교수가 들어가게 되었다. 이 연구실들은 원래 소장의 지명에 의해 언제든 바뀔 수 있는 행정 실무의 담당자인 부장들이 아니라 남명학의 연구를 실제로 수행할 학자들에게 배정하기 위해 특별한 설비를 갖추어 마련된 것이었다. 한문학과에서는 일찍이 공사가 진척되고 있는 단계에서부터 학과 전체를 이 건물 안으로 옮기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었는데, 결국 여섯 명의 전임교수 중 남명학에 관한 연구 논문이 있는 네 명이 모두가 이 건물 내에 공간을 배정 받았고, 그 외에 연구소사무실이나 중앙도서관 한적실의 소장 도서 전체를 옮겨온 2층의 文泉閣에까지도 한문학과 재학생이나 졸업생이 배치된 것을 감안한다면, 그 목표가 십분 달성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러한 까닭에 나는 일찍이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를 일러 '한문학과 부설 연구소'라고 평한 바 있었는데(『남명학과연구』 상권, 472-473쪽 참조), 『남명학연구』 제 11집에 명단이 보이는 편집위원 여덟 명 중 위쪽에 열거된 한문학과 소속의 네 교수에게는 한국한문학이라는 전공영역 외에 각각 세부적인 연구 분야를 덧붙였고, 후원회 회원 가입 연락처로는 허권수·최

석기·이상필 교수의 연구실 전 화변호를 적어 그들이 사실상 이 연구소의 주인임을 시사하였다. 즉 위원장인 허권수 교수는 '동양고전학', 위원인 최석기 교수는 '한국경학 전공', 이상필 교수는 '영남학백 전공', 장원철 교수는 '한중일 비교문학'으로 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보면 결국 한문학과 교수들은 자신의 전공 영역을 그 원래의 의미인 국문학의 한 영역으로서의 한국 한문학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한문으로 적힌 모든 문헌을 다루는 전통적 의미의 漢學을 지향하고 있으며, 그 중 남명학에 관한 주제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이상필 교수 한 사람만이 남명학 전문가로 간주될 수 있음을 알 수가 있다.

봉건왕조 시대에 학문 자체를 지칭하는 개념이기도 하였던 한 학이 국문학·중문학·국사학·동양사학·한국철학·중국철학 등 여러 전공 분야로 나뉘어져 있는 오늘날에 있어서, 나는 구태여 학제적·거시적 접근법이 필요하고도 중요함을 부인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남명이 '玩物喪志의 尤物'이라고 평가했던 한국 한시문학이라는 영역을 담당한 한문학과가 한문으로 적힌 모든 문헌을 자기 고

유의 학문적 연구 대상으로 내세운다는 것은, 오리지널한 연구실적물을 창조해 내는 것으로 삼아야 할 연구소가 한문강좌를 통해 서당식 한문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마치 내세울 만한 사회봉사나 되는 듯이 표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실로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남명학당은 원래 남명학 '전문 연구자의 양성'을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나, 남명이 이제 한국의 10대 사상가 중 한사람으로까지 평가되고 있는 마당에 이르러서는 그와 같은 연구자는 구태여 양성할 필요도 없이 날로 늘어나고 있으며, 지금의 남명학당은 그러한 명분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봉건 시대의 서원 교육을 계승함을 표방하고 있다. 사실에 있어서 이와 같은 한문강좌는 처음부터 경상대 한문학과가 대외적인 자기 홍보를 목적으로 시작했던 것인 만큼, 그것이 굳이 필요하다면 한문학과와 자체 예산이나, 과거에 한 때 그러했던 바와 같이 외부의 스폰서를 구해 실시하면 될 것이고, 연구소 예산의 상당 부분을 거기에 투여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

위에서 든 네 명 혹은 세 명이 중심인물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에 있어서는 연구소 설립 이래 계속 연구부장의 직책을 맡아보다가 지금까지 3기에 걸쳐 소장의 직위를 연임하고 있는 허권수 교수 한 사람이 중심으로 되어 이끌어 가고 있는 남명학연구소가 과연 남명학연구의 총본산이 될 수 있을지는 좀 더 시간적 여유를 두고서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끝으로, 나는 1998년에 발행된 『南冥院報』 제12호에 「出龍亭 遺蹟碑 有感」이라는 글을 기고하여 남명학연구소 측이 삼가의 뇌룡정 입구에 세운 짧은 비문 속에 무려 여덟 군데나 되는 오류 혹은 부적절한 표현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로부터 적다고 할 수 없는 시간이 지났지만, 나는 아직도 그 글을 기초한 허권수 교수나 공동으로 윤문한 한문학과 교수들이 그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거나 그 비문을 수정 혹은 철거했다는 소식을 접하지 못하였다. 만약 나의 지적이 틀리지 않았다면, 그 비석을 언제까지나 방치해 둔다는 것은 良識을 결한 행위일 것이다. 이번의 글에 대해서는 어떠한 반응이 있을지 독자들과 함께 기다려 보자 한다. 敬美

2001년도 정기총회 소식

본 연구원의 2001년도 정기총회가 지난 2001년 12월 22일 진주시 갑을가든에서 있었다. 이날 총회에서는 정관의 부분적인 개정과, 2002년도 사업(예산)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거쳐 확정하였다. 아울러 이 자리에서는 지난해 남명선생 탄신 500주년 기념 '선비문화축제'의 성공적인 추진에 공이 많았던 1개 기관과 5명의 개인에게 감사패를 전달하였다.

남명학연구원출판부 간행도서 및 기념품 판매 안내

남명학연구원출판부에서 발행한 도서 및 기념품의 판매에 대한 안내문입니다.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남명학연구를 진작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도서



● 남명학과 정치철학 연구

설석규 지음 / 양장 360쪽
정가 17,000원 → 판매가 14,000원
· 남명학과의 정치사상을 공론형성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한 책



● 남명설화뒀폴이

정우락 지음 / 302쪽
정가 10,000원 → 판매가 8,000원
· 남명에 관한 설화를 유형별로 정리 해설한 책



● 남명선생 문인자료집

김경수 · 사재명 지음 / 338쪽
정가 12,000원 → 판매가 10,000원
· 남명선생의 문인에 관한 자료를 정리한 책



● 남명집 4종

조 식 지음
정가 35,000원 → 판매가 30,000원
· 남명집의 여러 판본 중에서 중요한 판본 4종을 영인한 책



● 남명학파연구

오이환 지음 / 양장 상하 2책
정가 30,000원 → 판매가 25,000원
· 남명학파에 대한 연구를 남명집의 판본 변천과 연계하여 포괄적으로 서술한 책

2. 기념품



● 사적지안내 비디오 테이프 및 CD

각 7,000원
남명선생 탄신 5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제작

● KBS-TV 방영 「동방의 빛-남명조식」

· 방영일 : 2001년 10월 20일
판매가 7,000원

● MBC-TV 방영 「오백년의 대화-남명조식」

· 방영일 : 2001년 8월 28일
판매가 7,000원

● MBC-TV 방영 「행복한 책읽기-남명조식과 퇴계이황의 학문세계」

· 방영일 : 2001년 12월 4일
판매가 8,000원



● 성성자

대·중·소 및 소형 은방울 등 4종

※ 구입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사단법인 남명학연구원(☎ 055-741-9765)으로 연락하시거나 인터넷 <http://www.nammyung.org>의 도서 안내나 <http://www.dmplus.co.kr>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설가협회 주최 / 제2회 독서경시대회 은상 수상작품)

내 마음의 해와 달

유 다 은
신안초등학교

전국 독서경시대회에서 남명 관련 독서감상문 《내 마음의 해와 달》이란 제목으로
진주 신안초등학교 유다은 학생 초등부 은상 수상

사단법인 한국소설가협회에서 주최하고,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에서 후원한 제2회 전국독서경시대회에서 진주 신안초등학교 학생 초등부 3명이 은상, 동상 및 입선을 차지하였다. 여기에 은상을 수상한 작품을 게재한다.

이른 아침부터 온 가족이 분주하다. 아버지께서는 차돌이를 점검하시고, 어머니께서는 도시락을 준비하시고 내 뒤편 동생 돌보고, 바쁘다. 바빠!

손꼽아 기다리던 이번 여름 나들이는 나에게 좀 특별하다. 왜냐하면 바로 오늘이 요즘 내가 꼭 빠져 어쩔 줄 모르는 남명 조식 선생님을 만나러 가는 날이기 때문이다.

설레임의 노래가 흘러나온다. 이제 겨우 돌이 지난 내 동생도 무엇을 아는지 생글생글 방글방글……. 아빠가 아닌 다른 남자에게 빠졌다고 약간 빠치신 우리 아빠께서 빵빵 출발 신호를 울리셨다.

차창밖에는 여름이 한창이었다. 두류산은 벌써 짙은 초록물로 목욕을 마치고 나에게 어서 오라고 손짓을 했다. 시원한 물이 팔팔 쏟아지는 계곡에는 먼저 온 사람들이 송사리 잡기에 정신이 없었다. 내 가슴 속 방망이지리 소리가 쿵쿵 커지고, 엉덩이는 이미 의자에서 떨어져 들썩거렸다. 온 가족이 이 신나는 여름 친구를 안고 도착한 곳은 산천재.

상상과는 다르게 소박하고 오래된 기와집 한 채. 실망스러웠다. 하지만 곧 책에서 본 선생님의 청렴결백한 정신을 느낄 수 있었다. 화려한 치장도

없고, 대갓집 같은 높은 담과 멋진 문도 없는 집. 그렇지만 시골 할머니 댁에 온 것처럼 포근함이 있고 어머니 품처럼 편안함도 있는 것이었다. 가만히 둘러보니 정원에는 향긋한 흙냄새가 피어나고 지붕에는 나이를 알 수 없는 기와 사이로 이름 모를 풀꽃이 피어 있었다. 자그마한 마루에는 선생님이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잘 왔다고 말씀해 주시는 듯했다.

어려워서 잘 알 수 없는 조식 선생님의 한시를 부모님께 부탁해 들어보고 선생님의 묘소와 제자들을 가르치셨던 덕천서원을 둘러보고 캄캄한 밤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다. 조용하고 자연과 너무 잘 어울려 한 폭의 그림 같은 곳. 나는 그곳에 계시는 나의 사랑을 꼭꼭 가슴에 담아 가지고 왔다.

그 후 나는 조식 선생님을 뵙고 싶어 도서관으로, 서점으로 뛰어다녔다. 그렇지만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는 쉽게 찾을 수 없었다. 무슨 일인지 어른들을 위한 책들은 잔뜩 나와 있었지만 우리 어린이들을 위한 선생님의 책은 도무지 찾을 수가 없었다. 나는 서점에서 권해주는 몇 권의 책을 읽기 시작했다. 내 친구 사건의 도움을 받아보고 부모님의 설명도 들었지만 선생님을 적은 책은 쉽게 이해되지 않았다.

그러던 나에게 아주 큰 행운이 왔다. 내가 그토록 알고 싶고 보고 싶었던 우리들을 위한 조식 선생님의 책이 나온 것이었다.

「해와 달이 된 스승」

그 책의 표지를 보며 나는 놀랐다.

동화처럼 예쁜 제목이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해와 달을 비유하니 깊고 큰 뜻이 배어 있을 것 같았다. 책장을 넘기면서 콧노래가 저절로 나왔다. 앞에서 본 책들은 어려운 낱말과 잘 알지 못하는 역사적인 내용이 많았다. 그런데 이 책은 마치 요술 주머니처럼 선생님의 이야기를 술술 풀어 하나씩 나에게 꺼내 주었다. 나는 맛있는 풀다지에 빠지듯 책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그리고 선생님의 소중한 가르침을 하나 하나 배워갔다.

조식 선생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말을 배울 여섯 살 때 벌써 중국의 어려운 고서를 모두 다 익히셨다니 분명 천재이셨다. 하지만 성성자와 칼의 이야기에서 잘 알 수 있듯이 선생님께서는 소년시절부터 자신에게 철저하고 혹독하셨다.

생각 주머니에 먹구름이 끼려하면 성성자의 맑은 종소리로 생각을 깨끗이 하고, 마음에 조그마한 욕심이 짝트면 무서운 칼로 그 욕심을 말끔히 베어 내셨다. 그렇게 선생님께서는 늘 경과 의를 실천하셨다.

경이란 늘 단정한 몸가짐이다. 어떤 일에도 게으르지 않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거리낌없이 행동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자세이다.

의란 그런 마음을 올바르게 실천하여, 일의 끝날 때를 잘 알아 깨끗하게 마무리하는 자세이다. 그리고 그 속에는 참다운 용기와 올바른 판단력을 얻을 수 있다고 하셨다.

천재이셨지만 평생 학업을 게을리 하신 적이 없이 늘 노력하시니 경의 자세요, 그 높은 학업이 명예와 부를 누리는 데 쓰이지 않고 제자를 가르쳐 훗날을 밝게 하셨으니 의를 실천하신 것이다. 또 참다운 용기가 없었다면 죽음을 무릅쓰고 임금의 잘못을 지적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 부분에서는 나도 모르게 얼굴이 붉어졌다. 나는 다른 친구들보다 바이올린을 빨리 시작했다. 그러니 또래보다 잘 한다는 칭찬을 자주 들었다. 그래서 나

도 모르는 사이 자만심이 생겨 연습을 게을리 하다가 이번 음악회에서 그만 실수를 하고 말았다. 선생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던 경과 의를 실천하지 않은 것이다. 요즈음 신문에는 옳고 좋은 기사보다는 나쁘고 어려움을 고발하는 기사가 더 많다. 선생님의 '경과 의' 정신을 익히고 실천한다면 뇌물 받는 정치인도, 남의 재산을 탐내는 아저씨도, 미성년자를 고용하는 아주머니도 모두 사라질텐데…….

나는 이렇게 어려운 사회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우리 어린이들이라고 생각한다. 내일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니까. 우리가 작은 것부터 선생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면 된다. 거짓말하지 말고 교통질서를 잘 지키고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며 환경보호에 힘쓰는……, 이렇게 작은 일부터 해보자. 그리고 한번쯤은 참다운 용기를 내어 잘못하는 어른들께 선생님께서 주신 성성자의 맑은 종소리도 크게 한 번 울려보자. 우리는 반드시 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훌륭한 조식 선생님의 후손이니까.

어느 광고에서 "미래는 운명이 아니라 노력입니다." 라고 했다. 우리는 곧 미래이다. 선생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자 노력한다면 더욱 올바른 세상이 될 것이다. 선생님이 말씀은 우리의 밤낮을 밝혀 줄 해와 달로 영원히 남을 것이다.

이번 방학에도 우리 가족은 겨울 나들이를 떠난다. 하지만 오늘은 나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내 귀여운 동생까지 모두의 가슴은 쿵쿵 뛰고 있다. 이제는 우리 가족 모두가 선생님의 팬이 되었다. 특히 선생님께 꼭 빠지신 우리 어머니께서는 설레는 마음이 꼭 눈 온 날 이리저리 뛰는 강아지 마음 같다고 하셔서 우리 가족은 웃음바다가 되었다. 흰 눈 내리면 찾아뵙겠다고 했던 선생님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산천재로 향한다.

멀리 두류산의 흰 눈과 우뚝 선 소나무는 오래된 친구처럼 너무 잘 어울린다. 아름다운 경치가 우리 집 거실의 산수화를 똑 떼어다 놓은 듯하다. 선생님과 헤어져 돌아오는 길에 흰 눈이 하나 둘 떨어지고, 저 멀리에서 선생님의 인자한 목소리가 들린다.

"다운아, 눈길 조심하거라."

『南冥學研究論叢』 投稿規定 審査 및 掲載規定

投稿規定

本院에서는 南冥學 研究의 振興을 위하여 매년 2회(6월 말과 12월 말) 『南冥學研究論叢』을 刊行하고 있습니다.

論叢編輯委員會에서는 다음과 같이 編輯方針을 정하고, 研究者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립니다.

1. 掲載範圍

南冥學 및 남명학파에 關聯된 主題에 關한 論文

2. 原稿分量

200자 原稿紙 기준 150매 内外

3. 投稿方法

- 1) 소정의 「研究計劃書」를 작성하여 本院에 제출한다.
- 2) 常任研究委員會에서 「연구계획서」를 審議하여 研究 委囑與否를 결정한다.
- 3) 채택된 「연구계획서」에 대해서는 소정의 研究費 중 절반을 着手金으로서 지급한다
- 4) 執筆 완료 후 해당 디스켓(E-메일도 可함)과 출력된 원고 2부를 本院에 제출한다.
- 5) 「연구계획서」 제출 없이 投稿한 경우에는 별도의 審査를 한다.

4. 論文 投稿時 遵守事項

- 1) 사용 가능한 워드프로세서는 훈민정음 95 이상, HWP 3.0 이상의 버전이나 또는 이와 호환 가능한 프로그램이며, 최종 提出本의 경우는 原稿와 디스켓(파일)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2) 論文題目 및 投稿者의 姓名, 所屬, 住所, 電話番號 등은 別紙에 따로 作成하여 提出한다.

3) 本文 글자체는 신명조 10포인트로 작성한다.

4) 논문 제출시에는 200자 원고지 2매 이내의 국문 초록과 10개 내외의 주제어(keyword)를 제시하여야 하며, 논문의 끝에는 외국어 초록을 첨부하고 영문 제목을 달아야 한다.

5) 註는 脚註를 原則으로 하며 반괄호[예: 1)]를 사용하고, 글자체는 신명조 9포인트로 作成한다.

6) 參考文獻을 表記할 경우는 다음과 같은 규칙에 따른다.

① 東洋文의 경우 論文名은 「 」로, 書名은 『 』로 표기한다.

② 西洋文의 경우 論文名은 " "로 묶고, 書名 및 刊行物名은 이탤릭체나 밑줄로 표시한다.

③ 여러 卷의 著書나 論文을 함께 表記할 때에는 단락을 나누지 말고 이어서 쓰고, ';' 부호로 연결한다.

7) 기타의 사항은 一般的 論文作成 요령에 따른다.

5. 掲載方法

1) 『南冥學研究論叢』 審査 및 掲載規定에 따른다.

2) 掲載가 결정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研究費 중 나머지 절반의 金額을 지급한다.

6. 接受處

- 경남 진주시 봉곡동 14-21 (2F)
사단법인 남명학연구원 (우) 660-040
- 전화 : (055) 748-9147
- E-mail : ionms@nammyung.org

審査 및 掲載規定

1. 『南冥學研究論叢』은 毎年 6월 말과 12월 말에 刊行함을 원칙으로 하며, 당 호 발간일 2개월 전까지 接受된 投稿 論文을 심사대상으로 한다.
2. 審査委員은 編輯委員(南冥學研究院의 院長을 포함한 常任研究委員)이 함을 원칙으로 한다.
3. 編輯委員會에서 그 필요성을 認定한 研究分野에 대해서는 해당분야의 專政者에게 특별히 연구를 委囑할 수 있다.
4. 게재 논문은 본 연구원에서 매년 4월에 개최하는 연구위원회나 또는 매년 8월에 개최하는 국내 및 국제학술회의에서 발표하여 검증을 거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투고된 論文은 1편에 해당분야 전공자 3인의 심사위원을 배정하여 소정의 「論文檢討意見書」에 의한 평가를 통하여 3等級(게재, 수정 게재, 게재 부적합)으로 심사 分類하고, 여기서 2인 이상에게 게재 評定을 받은 것만을 게재 대상으로 한다.
6. 심사결과 掲載對象이 된 논문이라도 편집위원의 평가에 따라 내용의 修訂·補充·縮小 등을 요구할 수 있다.
7. 해당 논문의 게재 順序는 編輯委員會에서 별도로 정한다.
8. 심사결과 게재 대상이 된 논문이라도 해당 號의 編輯分量을 超過할 경우에는 다음 號에 게재할 수 있다.

● 소 식 ●

■ 본원 2002년도 제 1차 상임연구위원회 개최
본원의 2002년도 제 1차 상임연구위원회가 지난 2월 6일에 본원 사무국에서 개최되어 금년도 연구분야 주요사업 내용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결정된 주용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본 연구원 금년도 연구분야 주요사업 내용

1. 『남명전서』 간행사업
본 연구원에서는 『남명집』, 『학기유편』, 『남명집』 부록, 『산해사우연원록』의 일부 내용을 포함하는 『남명전서』를 간행하기로 하고, 국역본 및 중국어 역본, 영역본 등을 연차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2. 연구위원 세미나 4월 개최 및 학술회의 8월 개최
본 연구원의 정기 학술발표회인 연구위원 세미나를 매년 4월에 개최하기로 하고, 학술회의는 매년 8월 '남명 선비문화축제'의 일환으로 개최하기로 하였다. 금년부터는 『남명학연구논총』을 1년에 2회(6월 말과 12월 말) 간행하기로 한바, 논총에 수록하게 될 논문을 대상으로 하여 연

구위원 세미나와 학술회의에서 발표하도록 협의하였다.

3. 남명선생 홍보 소책자 발간

- 1) 남명선생의 문집 중에서 삶에 도움이 될 만한 격언을 모아 소책자로 간행하는 것을 정우탁 교수가 추진하기로 하였다.
- 2) 남명사상을 홍보하고 사적지를 안내하기 위하여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10 페이지 내외의 홍보책자를 발간하기로 하였다.

4. 연구원 홈 페이지에 쉽게 구할 수 없는 기간 연구논문들을 전산화 하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연구자 및 일반인들이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5. 남명학과와 관련한 고문헌 및 유물, 유품을 유물전시관에 전시하기 위하여 기증 및 위탁관리를 통하여 확보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구입하도록 한다.

남명학파 관련 유물 / 유품 / 고문헌 기증 또는 위탁관리 의뢰

국비와 경상남도비, 산청군비 등 약 2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산천재 일원에 유물전시관 겸 교육관을 금년 중에 완공하기로 함에 따라, 유물전시관에 전시하게 될 유물 및 고문헌의 기증 또는 위탁관리의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 기증 또는 위탁관리 의뢰 품목
남명학파 관련 고문헌
남명선생 또는 문인, 사숙인과 관련한 유물, 유품

▶ 기증 또는 위탁 시 관리요령
본 연구원에 기증 또는 위탁관리를 의뢰하고자 하시는 개인, 단체, 문중 등의 명단을 영구보존하며 유물전시관에 전시함

▶ 기증 또는 위탁 요령
기증 또는 위탁관리를 하실 의향이 있으신 경우 본 연구원으로 연락을 주시면 언제라도 직접 찾아뵙고 상담하며, 기증 또는 위탁에 필요한 제 경비는 본 연구원에서 부담함

☆ 연락처
진주시 봉곡동 14-21 사단법인 남명학연구원
전 화 : 055) 748-9147, 9148
팩 스 : 055) 748-9152
전자우편 : ionms@nammyung.org
홈페이지 : www.nammyung.org



본원 상임연구위원 3명 추가 위촉

본원의 상임연구위원 3분을 추가로 위촉하였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의 박병련 교수와 명지대학교의 한명기 교수, 그리고 규장각의 신병주 선생을 2002년 1월 1일부로 본원의 상임연구위원으로 위촉하였다. 이 세 분은 그동안 남명학에 대한 꾸준한 관심으로 여러 편의 논문을 발표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치·행정학 및 역사학의 분야에 대한 전문 연구자를 보완한다는 취지에서 상임연구위원으로 위촉하게 되었다.

산천재 일원 유물전시관 겸 교육관 금년 중 완공 예정

산천재 일원에 건립을 추진 중인 유물전시관 겸 교육관 시설이 약 25억 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3월 중 업체를 선정하고 착공하여 금년 중에 건물공사를 완공할 예정이다.

자세한 소식은 다음 호에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 남명학연구원 학술상 안내 ◇

남명 및 남명학파에 대한 연구를 진흥하기 위하여 남명학연구원에서 제정하여 시행하는 남명학연구원 학술상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상의 종류 및 상금

- 1) 박사학위상 : 3,000,000원
- 2) 석사학위상 : 1,000,000원
- 3) 장 학 금 : (1) 박사과정 : 1,000,000원 (2) 석사과정 : 500,000원

4. 수상자격

- 1) 박사학위상 : 남명학 또는 남명학파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자.
- 2) 석사학위상 : 남명학 또는 남명학파에 관한 연구로 석사학위를 받은 자.
- 3) 장 학 금 : 남명학 또는 남명학파에 관한 연구로 해당 과정의 학위를 준비하고 있음이 확인된 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사단법인 남명학연구원 (055-748-9147)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사단법인 남명학연구원 연구계획서 양식 ◇

◆ 본 연구원에서는 『남명학연구논총』에 게재할 논문(200자 원고지 150매 기준)을 수시로 접수합니다.

◆ 『남명학연구논총』에 논문을 게재하고자 하는 분은 오른쪽의 연구계획서(A4 용지규격)를 작성하여 본 연구원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연구계획서 양식은 본원의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연구계획서는 심사 후 선정된 논문에 대하여 소정의 연구비를 지급합니다.

사단법인 남명학연구원			
연구 계획서			
성 명		소 속	
주 소	자 택		전화
	직 장		전화
논 문 제 목			
목 차			
연구개요			
주 요 참 고 문 헌			
연구시작시점		논문완성예정시점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2002. 문화관광부 선정 지역민속축제 『남명 선비문화축제』



國務會議에서 議決하여 法司委에 稽留중에 있는 同姓同本 禁婚法 및 戶主制 폐지를 國家將來와 子孫萬代를 위하여 決死反對 한다

成均館 儒道會 慶尙南道 晋州支部



會長 成煥喆

首席副會長 韓善愚
副會長 吳世允
" 鄭順燮
" 姜錫周
" 李元煥

晋州市 玉峰北洞 231-1
晋州 鄉校
晋州 支部

전화 (055) 742-3173
팩스 (055) 742-1184

自宅: 晋州市 株藥洞 156
한주력키타운 1棟 1103號

전화: (055) 753-2628

(055) 754-5032(水谷)

남명학연구원 회원가입 신청서

본인은 사단법인 남명학연구원의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합니다.

(년회비 :2만원/ 연구원 간행책자 및 원보 우송)

성명	(한글)	본관	연원관계
	(한자)	생년월일	약력
주소	(주택)	전화	
	(직장)	전화	

각종 우편물을 받으실 주소 뒤에(우편)이라고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남명학연구원 이사장 귀하

경남 진주시 봉곡동 14-21 (2F) / 전화 (055) 748-9147~8 / 팩스 (055) 748-9152

계좌번호: 우체국: 610774-01-004728 남명학연구원

농협: 803-01-367374 남명학연구원

국민은행: 652-01-0491-776 사단법인 남명학연구원

경남은행: 524-07-0081228 사단법인 남명학연구원



2002. 문화관광부 선정 지역민속축제
『남명 선비문화축제』



교육부인정
사단법인

한국 스피드리딩 교육협회

SRS 영재스쿨

진주 중부교육원

초집중 고속학습

초 · 중 · 고등부 전문학원

748-9391~2

진주시 신안동 581-3 한서빌딩 5층



2002. 문화관광부 선정 지역민속축제
『남명 선비문화축제』



新都旅客白動車株式會社

代表理事 金東均

蔚山廣域市 南區 新亭洞 1125의 11番地

電話 : (052) 274 - 4242 ~ 5

본 연구원 전화번호 변경 안내

본 연구원의 전화번호가 업무의 편의를 위해 기계식 국번에서 전자식 국번으로 번호가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변경된 전화번호

대표번호 : 055) **748-9147**

일반번호 : 055) **748-9148**

팩스번호 : 055) **748-9152**

※ 변경 전의 번호로 전화를 하시면 8월 18일까지 변경된 번호에 대한 안내가 나옵니다.

◀ ◀ ◀ 편집 후기 ▶ ▶ ▶

- 『임오년에도 본 원보를 받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 『본 원보에는 누구나 자유롭게 기고할 수 있습니다. 본 원보가 자유로운 토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옥고를 기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금년에도 연구원의 발전을 위하여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編輯人 : 金敬洙 事務局長

사단법인 남명학연구원

660-040 경남 진주시 봉곡동 14-21

전화 (055) 748-9147~8

팩스 (055) 748-9152

INSTITUTE OF NAM-MYUNG STUDIES

14-21 BONGGOK-DONG, JINJU,

KYUNGNAM 660-040, KOREA

TEL: 055-748-9147~8 / FAX: 055-748-9152

INTERNET HOMEPAGE : <http://www.nammyung.org> / E-mail : ionms@nammyung.org